

SBS 사우 3대 덕목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 존경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제16호 2010년 10월 1일

# SBS 사우회보

발행처 SBS사우회 150-89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 태양빌딩 605호 Tel 02)783-0590~1 Fax 02)785-9805 E-mail sbsau@hanmail.net 발행인 임형두 편집인 이시권 편집디자인 이레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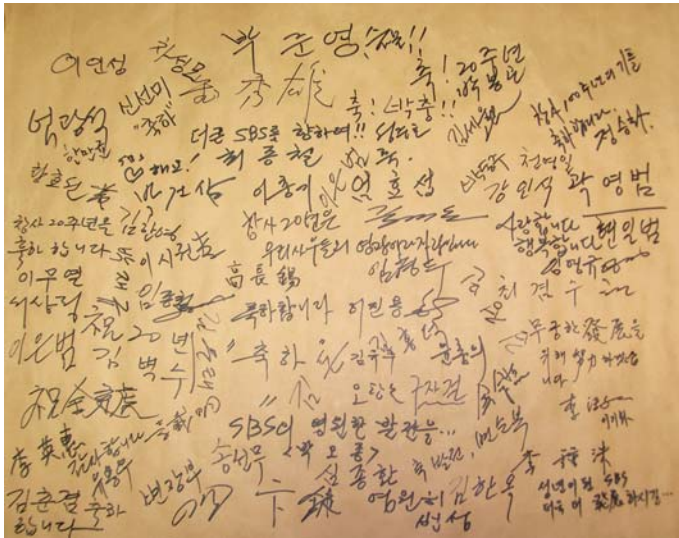
## SBS 창사 20주년, SBS 사우회 창립 4주년

### SBS 창사 20주년 기념식 성대하게 개최

지혜의 눈으로 내일을 보면서 새롭게 출발할 것 약속



SBS창사 20주년 기념식이 8월 16일 SBS북동사옥과 오목공원에서 정관계, 재계, 문화연예계 등 각계 인사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념행사는 SBS의 2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역사관 'SBS tori' 개관식을 시작으로 기념식, 미디어아트 개막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윤세영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SBS가 건설한 종합 미디어그룹으로 성장해 미래의 강력한 글로벌 미디어를 꿈꾸게 된 것은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소통하는 열린 미디어를 구현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풍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적 경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미디어로서 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BS본사는 사우회 회원들을 대표하여 고문 및 운영위원을 행사에 초청했다.



### SBS 20년을 한 눈에, 디지털 역사관 'SBS tori' 개관



이날 오후 5시 SBS 북동 사옥 2층에서는 디지털 역사관 'SBS tori' 개관식이 열렸다. 테이프 커팅식에는 윤세영 SBS회장, 윤석민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우원길 사장, 하금열 SBS 미디어홀딩스 사장, 임형두 사우회장, 이남기 부사장, 이응모 방송지원본부장이 참석했다. 'SBS tori'는 SBS의 과거와 현재, 비전을 보여주는 사료 중심의 SBS 역사공간으로 총 55개의 모니터 110여개의 영상을 담은 영상 역사관이다.

### 사우회 창립 4주년 기념식 가져

조출하지만 뜻 깊은 자리 마련돼

SBS사우회 창립 4주년 기념식이 9월 3일(금)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사무실에 서열됐다. 공식 기념일은 9월 5일이지만 일요일이므로 이를 앞당겨 가진 것이다. 사우회 고문을 비롯, 운영위원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지난 4년간의 사우회 활동을 돌아보고 이후로도 더욱 발전하는 사우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가졌으며 회원 간의 우의를 다지는 건배로 행사를 마쳤다.



### SBS 창사 20주년 축하 메세지

사우회원들의 정성 모아 서명

축하합니다.

방송의 다양성이 부족했던 1990년 11월 14일에 방송사 하나가 새롭게 탄생했고 다음해 3월에 라디오, 12월에 TV 방송을 개국한 SBS의 창사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SBS 사우회원들은 창사를 지켜본 회원도 많을 뿐 아니라 SBS에 몸담고 땀 흘려 정열을 바친 진정한 SBS맨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20주년 생일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축하 메시지를 띄웁니다.

### 사우회 창립기념 바둑대회 성료

이날 바둑동호회는 오후 1시부터 창립기념 바둑대회를 열어 행사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대회는 3급 이상 A조, 4급 이하 B조로 나누어 각 조별 토너먼트 대국으로 진행되었는데 A조에서 우승 고장석, 준우승 이인성, 3위 변건 사우가, B조는 우승 엄광석, 준우승 박오종, 3위 정승화 사우로 각각 결정되었다. 한편 신계균 회원이 동호회 발전기금 10만원을 쾌척하여 박수를 받았다.



### '홈커밍데이' · '송년의 밤'에 초대합니다

사우회 행사 중 가장 즐겁고 흥겨운 날은 연말 '송년의 밤'입니다. 금년은 SBS 창사 20주년이 되는 기쁜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모두 기념하기 위하여 본사 초청 '홈커밍데이'와 '송년의 밤' 행사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2010년 11월 24일(수) 저녁

장소: SBS북동 사옥

행사내용: 송년의 밤 행사 / 신사옥 견학 / 만찬 / 기념품증정

SBS 사우회장 임형두

〈시골에서 온 편지〉

# 이곳에 한번 꼭 놀러오세요

글/ 박충사우(사우회 운영위원)



**S형!**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안녕 하 셧습니까? 아주머님을 비롯 해 아드님, 따님 모두 잘 계 시겠지요. 저는 형께서 염려 해주시는 덕분에 그 동안 재 직 중이었던 서울예술대학 방송학과 교수직에서 지난 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 퇴 임 하였습니다. 1966년 사

다. 내 손으로 심고 수확한 채소를 주변사람에게 나눠주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 니다. 옥수수를 듬뿍 넣은 잡곡밥에 가지며 호박나물, 열무김치, 호박잎 찐 것, 강된장... 이것이 오늘 제가 점심에 먹은 식단입니다. 이 모든 것 전부 제가 기 르고 수확한 것입니다. 아참! 쌀은 SBS에서 준 철원 오대미입니다. S형과 함 께 방송사에 근무할 때는 점심시간만 되면 오늘은 무얼 먹을까 늘 고민했는 데 지금 저는 그런 고민이 없이 삽니다.

## 대과없이 조직생활 무사히 마친것 기뻐 SBS근무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아

회생활을 시작하지 45년만에 모든 조직생활을 대과없이 끝마친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이는 S형을 비롯한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직장을 거쳤지만 S형과 함께 SBS에서 근무했던 시절이 제일 기 억에 남습니다. 그 시절, 우리 손으로 개국하고 우리의 땀으로 탄생시킨 방송을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밤새워 일했던 그 시절이 매우 그립습 니다. 지난 6월과 7월, SBS가 단독 중계한 월드컵을 시청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하여 일했던 SBS가 탄생 20년만에 일등방송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면서 행복했으며 남다른 감회에 젖을 수 있었습니다. S형도 물론 같은 생각 이셨겠지요?

S형! 시간 나시면 한번 놀러 오십시오. 오셔서 제가 심고 수확한 오이로 담근 오이지며 고추장아찌도 가져가시고 깻잎장아찌도 좀 가져다 드십시오. 이 모든 것 S형이 평소에 좋아 하시던 것 아닙니까? S형! 그 무 엇보다도 우리 농장 웅달샘에 시원하게 채워 둔, 형이 좋아하는 막걸리를 한잔 같이 하시면서 지난 날 함께 했던 추억에 젖어 보십시오. 지금 밖에서 집사람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도 무와 김장배 추 모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장떡으로 의논하러 가자는 것일 겁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 집사람이 새삼 고맙게 느껴집니다. 밭에서 찍은 사진도 함 께 동봉하니 보시고 꼭 놀러 오십시오.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골 연천에서 어느 날 박충 올림

S형! 요즘 저는 시골생활에 푹 빠져 있습니다. 바쁜 방송 생활 속에서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인지를 늘 생각해 오다가 SBS를 나올 때, 그동안 저축한 예 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경기도 북쪽 연천에 조그만 농장을 마련했었습니다. 금 년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위를 잊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

### 사우 동정



**김재순**

9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서패리 230-1번 지에 <오크캐슬>이라는 음식점을 세웠다. 건물 3동에 한정식당과 카페를 오픈했는데 드라마 연출보다 얼마나 어려울지 자신도 궁금하다고



**강인식**

지난 8월 19일, KT에서 새로운 보직인 '오픈 IPTV 활성화 프로젝트' T팀장(상무급)에 임명 됐다.



**박건삼**

국악방송 PD이기도 한 박건삼 사우가 세 번째 시집 '세가지 그리운 풍경'을 펴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회憶과 까미노 800Km의 여정, 히말라야 트레킹, 그리고 일상에서 느낀 감정 등을 정리한 작품이 실렸다. <詩로 여는 세상> 발행에 값은 1만원이다.



**박희설**

동아일보 방송사업추진단 기획본부장 겸 동아미디어 아카데미 원장으로 위촉됐다.



**유정현**

유정현 사우(한나라당 국회의원, 행정안전 위원회)는 소방관련 긴급차량의 교통사고처리 특별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방 차량의 교통사고가 연평균 16%씩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허원제**

허원제 사우(한나라당 국회의원)는 최근 국 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에 배치됐다.



**표재순**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 광주, 부산에 서 공연된 연극 "너희가 나라를 아느냐"의 연 출을 맡았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구한말 비극의 시대에 확고한 국가관으로 지식인의 사 명과 원로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온 몸으로 보 여주었던 최익현(崔益鉉) 선생의 생애를 통해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이며 참 지식인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연극이었다.



**이무열**

강서구 등촌동 중고차 매매단지 내에 <신성 자동차판매>회사를 설립했다. 수입, 국내 중고차를 취급하며 사우회원들은 특별 우 대하여 상담해 준다.



**신동훈**

고향인 대전으로 회사 (EM)를 옮겼으며, 지 역문화축제를 비롯하여 전시대행, 세일즈프로 모션 사업이 이전보다 잘 돼 재미에 빠졌다고.

### 신입회원 (7월 ~ 9월 가입자)



**신병식**

서울 동작구 상도동  
H.P : 010-5229-8370



**강동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법곡동  
H.P : 010-3171-6550



**이종한**

서울 은평구 갈현동  
H.P : 010-3718-2344



**정성환**

서울 강남구 개포동  
H.P : 010-3713-0121

### 중신회비 내신 회원(각 20만원)

권정일, 김문배, 박건삼, 박희설, 신병식  
윤근일, 이병열, 이병정

### 연회비 내신 회원 (7월 ~ 9월 각 2만원)

김광섭, 박병권, 소속자, 손규환  
윤정수, 최혜욱

■ 회비납부 계좌 ■

우리은행 1006-901-277104  
예금주 : (사) 에스비에스사우회

### 경 조 사 항

■ 결혼

9월 4일 김임순 장남

■ 부음

6월 28일 윤정수 모친상  
8월 15일 윤희기 부친상



謹 弔

홍충태 사우  
2010년 9월 21일 별세  
향년 61세

# 할리데이비슨과 색소폰 인생

글/ 박영호 사우



제 나이를 막 넘기던 때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정년퇴직후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송생활 하다가 퇴직하신 여러 선배님들의 경우도 많이 보았고, 또

직장을 물러난 많은 선배들이 딱히 할 것이 마땅치 않아 여가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많이 움직이고 머리를 계속 써야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진다는 진리를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기며 살까, 또 무엇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우연히 TV다큐멘터리 한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에서 제작한 할리데이비슨 라이더(Harley-Davidson Rider) 들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소유한 호그(HOG, 할리데이비슨 오토 그룹) 주최로 전 세계에 캠퍼를 두고 국제적인 행사와 또 대민 봉사활동을 하며 인생을 즐기는 것을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선 대형 바이크를 타려면 3가지의 조건을 해결해야 가능합니다. 첫째는 면허를 따야 합니다. 오토바이 2종 소형면허 따기가 무지 힘들습니다. 예를 들어 컷서비스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10번이상은 떨어질 정도로 힘들고 까다로운 면허시험입니다. 둘째로는 집안 식구들 동의를 받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크가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



이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와 본인의 배짱 문제입니다. 단숨에 몇 천만 원을 내놓을 수 있는 배포와 경제사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3가지 조건을 해결하는데 무려 1년 동안 공들이고, 연습하고, 또 적극까지 들고 해서 드디어 2005년도에 꿈에 그리던 할리데이비슨 울트라 클래식을 구입합니다.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SBS에서 정년퇴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랑 같지만 참으로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구나 느끼며 매 주말 마누라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바람을 가르

며 달리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바이크를 구입할 때는 돈이 들었지만 이후에는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주말에 연료값과 식대를 포함해서 8만원 정도면 두 사람이 아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니 부부가 골프를 즐기는데 50만원 가량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것이지요. 그 뿐 아니라 바이크 타는 사람들의 연령층과 직업들이 다양해서 대인관계에도 아주 좋고, 바이크가 무겁기 때문에 (500Kg 정도) 운동도 많이 해야 하고, 바이크가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해 주기 때문에 패션에도 신경 써야하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에 엄격해지고 관리도 잘하게 되니 노후에 이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년퇴직 1년 전에 저는 또 전혀 다른 세계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색소폰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색소폰을 배워서 뭐가 좋냐는 질문도 많지만 양로원과 장애인재활원 같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살이의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색소폰을 불게 되면 치매예방이 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니 상당한 수양이 되지요. 그리고 산소를 많이 호흡하고 대신 일산화탄소를 모두 뱉아내니 색소폰부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색소폰 배우지 불과 1년만에, 작년 연말 SBS 가족초청 음악회에 출연하였고 SBS사우회 '송년의 밤'에서도 많은 선배님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프로(?)가 되어 구청마다 연주 신청이 올 정도로 바쁘지만 더불어 행복하게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 바빴다면 지금은 색소폰 연습 (하루3시간정도) 하라, 주말에 양로원 및 장애인재활병원에 공연 다니라, 일요일은 할리데이비슨 타고 전국을 달리며 인생을 즐기고 있으니 늙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사우회 카페에 할리 타는 사진과 색소폰 부는 동영상, 봉사활동하는 사진들을 올렸으니 감상 하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영호 사우는 작년 말 정년퇴직 후 지금은 한국민영방송협회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편집자)

## 박동주의 '너섬' 속 '나섬이'

### SBS 창사 20주년 투모로우 페스티벌, 지상최대 축제버금

스무 살 청년의 열기 왕성한 약관의 SBS 보았노라!  
다시 20년 후 투모로우페스티벌은  
세상 흔들림 고떡없는 마흔 살 불혹,  
달관의 경지 보여줄 것 기대!

### 사우회 창립 4주년, 네살바기는 한창 귀엽고 사랑받을 때

SBS 사우회 어린이를(?) 노병이라고 부른 맥아더 출입금지!  
아~ 아~ 회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요~.  
SBS 사우회는 정년이 없는 곳, 長壽萬年 인생을 즐기십시오.  
아~ 아~로고송 나갑니다. 기쁨주고 사랑받는 SBS 사우회~..

### 흠꺼밍데이 11월말 개최, 첫 친정가는 새댁의 설렘

추억 보따리 풀며 SBS맨 자긍심을 되새기는 자리 되시길...  
노파심에 한마디... 내비게이션 확실히 입력바람.  
여의도 NO! 목동 OK

### 가을, 모두가 시인이 되는 계절입니다

"주여! 가을입니다" 시인(릴케)가 보내온 엽서 한 통.  
가을에는, 회원들의 모든 소망 더 알차게 영글게 하소서.  
가을에는, 회원들이 노래방에서 제발 이 노래는 부르지 말게 하소서.  
"아~ 으악새 슬피 우는 가을인가요 ~~"  
이 좋은 계절이 심란 하옵나이다. ㅋㅋ

단 신

### 'SBS 女友會' 첫 모임 가져

사우회 여성회원들의 모임인 'SBS 여우회'(회장 변순복)가 발족 후 처음 미팅을 가졌다. 9월 30일(목) 12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오랜만에 만난 기쁨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정례모임으로 발전되도록 하는 방안과 아직 사우회원에 가입하지 못한 회원들을 수소문하여 회원을 늘리는 문제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있었다.

### 수요일은 '사우회 방문의 날'

사우회 사무처에서는 매주 수요일은 '사우회 방문의 날입니다'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여의도 사우회 사무실로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며 살아가는 얘기도 나누는 이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 SBS 주최공연 할인 된다

본사 문화사업팀(팀장 박종필)에서 주최하는 공연 관람을 원하는 사우회원들에게는 본사 직원들이 받는 할인율(10%~20%)을 적용해 준다. 10월 이후 행사일정과 예매문의는 전화 02-2113-3440(SBS 문화사업팀)

- 연극<연애희곡> ~ 10. 31 충무아트홀 블루
- 뮤지컬<스팸어랏> ~ 2011. 1. 2 한전아트센터
- 뮤지컬<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0. 22~2011. 1. 30 유니버설 아트센터

이찬휘 사우의 건강다이제스트

## 용감한 여성들



되면 대부분 염증이 생겨 재수술을 받거나 심하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피부 괴사로 몸은 물론 마음까지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성형부작용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여성들에 대해 잘 모르던 것을 여러 가지 알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느꼈던 여성들은 약하고 남성들의 보호가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예외지요)

이번 취재에서 아름다움을 위해 수술대에 오르는 여성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 눈에는 떨쩍하고 예쁘기만 한데 수술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부모가 주신 얼굴에 칼을 대는 것이 이해가 안됐습니다. 몸이 아픈것도 아니면서 왜 수술을 결심하는지? 특히 성형수술을 한 뒤 한동안 아픔이 시달려야 하는데도 여성들은 하나같이 꼭 잡아챱니다. 두 번째는 '부모함'에 놀랐습니다.

분명 의사도 아닌 사람인 줄 알면서 자신의 얼굴을 맡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찜질방이나 미용실에서 무허가 시술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부작용이 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 집안에서 은둔 생활을 하거나 심한 자괴감으로 우울증에 빠져 거의 폐인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형 수술은 비용이 만만치 않죠. 하지만 값싸다고 무허가 시술을 받을 경우 부작용으로 평생을 고통 받아야 합니다. 'SBS 세상에 이런 일이'에 방영된 '선풍기아좁마'가 대표적인 사례이죠.

외모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늘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 탓이라면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긴 것에 구애치 않고 자신의 모습에 감사하며 늘 웃는 여성도 있습니다.

이 두 여성을 보면서 제 생각을 감히 말해 봅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과 아름다움이 더 예쁘고 빛난다는 건, 저 만의 생각이 아니겠지요?

필자 / SBS, SBS CNBC 의학전문기자

트위터(TWITTER)를 아시나요?



지금은 트위터로 소통하는 시대, 알아두면 편리한 상식입니다.



140자 이내의 짧은 글(Tweet)을 올릴 수 있는 단문전용 미니 홈페이지입니다.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수신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가입한 추종자(follower)모두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내가 가입한 트위터의 모든 글을 수신할 수 있기도 합니다. 'Tweet'는 새가 지저귀는 뜻입니다.

<이용 절차와 방법은?>

우선 본인이 트위터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트위터 홈페이지는 <http://twitter.com> 또는 한국어 주소 <http://twtkr.com>입니다.

구체적 이용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트위터강좌'로 알아봅니다.

<스마트폰과 트위터와의 관계는?>

인터넷에 연결된 PC는 물론,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의 특징이 시간, 공간의 제한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 즉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위터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스마트폰 사용자의 80%가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부작용은 없는가?>

대부분 정치관련 트윗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정해진 대상을 공격하는 등 정당한 비판 보다 악의적 비난도 종종 일어나므로 부적절한 트윗에 follower로 가입했다고 생각되면 탈퇴하면 됩니다.

# 내일을 봅니다 SBS Contents Hub

SBS콘텐츠허브는 세계적인 콘텐츠 종합 유통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콘텐츠 기획 유통 No.1 SBS콘텐츠허브

